

고향

1

파아란 직행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식은땀으로 원밤을 지새웠다

불어 닦친 개발 봄에
어릴 적 넘어 다니던
고갯길이 사라지고
무너진 동산 밑에서
고향은 여우고 있었다
지랄병에 게거품 흘리는 덕구처럼
비명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어릴 적 친구는
레지를 연모하다가 쥐약을 먹었다
저 하나 사랑하기를 바랬던 그는
보드라운 살에 날이 선 비수를 꽂고
절름거리는 아버지와
광대뼈만 앙상한 어머니
비루먹은 고향을 쥐약 한 병으로 버렸다

2

못 배운 것이 서러운 부모님은
대처에 나가 출세한
감투 아저씨를 찾으라 한다

그저 너희 새끼들 잘되는 일이니
인사나 하라고 한다

아버님 일장 훈계
듣고 나니 허망하다
연줄 타고 돈이나 벌라 하는
돈벌레가 최고인 세태가 더러워
지난날의 가난이 역겨워
양심이야 제껴 두고
돈이나 벌어라 하는
아버님 마음이야 알고도 남지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날

푸른 옷을 벗고 돌아온 고향은
다시 더 푸른 수의를 강요한다
개발, 개발
지옥행 직행 버스
연옥행 완행 버스

3

고향
내 사랑하는 고향
어설픈 도둑님들이
쌍심지를 둔구고

흡혈귀인양 빨아대는 곳
비루먹은 고향
두고 볼 수는 없는
말라비틀어진 고향

농약

많기도 해라
멀구 이화명충 도열벌 잎마름병……
하늘 같은 여름지기 소망을
가는 줄기에 얹고 자라는 벗줄기
행여나 시름 앓을라 뿌려대는
뽕안 물안개 위로 어리는 무지개는
아름답기도 해라
아름답기도 해라

독하기도 하지
우리네 찌든 살림
야금야금 갉아대는 면서기, 농협 직원만큼이나
숨통을 죄어오는구나

세상 사람들 밥통 속에 들어가
사람답게 살라고 외치는
어여쁜 벗줄기에 뿌려대는
고독성 농약

“실수로 마시거나
살포 후 부작용이 있을 시는
전문 의사에게 보이시오.”

돈 많고 뺨 좋은 배불뚝이 사장님

밤하늘 은하수만큼이나 높으신 분들은
손에 손에 칼을 들고
피 떨어지는 살점을 찢어대거나
무공해 식품만을 재배해서 드신다지만
어찌 할이 거나
어찌 할이 거나

(미완성)

며

한 알이라도 논바닥에 떨어질라
봄내
여름내
땀방울만으로 키운 너

배부르고 기름 번드레한
놈들은
비만 식품이라 외면하지만
돈 벌러 떠난 딸년
공부하러 간 돌이
입마다 입마다 배불리는 너
그나마 없으면
라면으로 대신하기도 하는 너는
너는 우리 희망이다

양놈 쌀에 놀리고
쇠고기에 밀려난 천덕꾸러기
팔삭동이 꼴이 되더라도
너는 우리 모두의 바램이다
한숨과 눈물로 모질게 영근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가을 · 1

시리도록 높은 하늘이
산을 두르고 들판을 가린다

이 산
저 들판
구부려 기는 흰 적삼
피로 물든 흰 저고리

소매는 길어 하늘을 가리고
통은 넓어 자비련만
어머니
골 깊은 눈에 가득
시름을 담고
웃음 하나만으로 살아온 당신
자식 놈 하나 키우느라
피골이 상접하도록 모진 것 이겨낸
당신
내 어머니

가을은, 가을하늘은 주름을 펴지만
펴지지 않는
당신의 얼굴에
모진 햇살 비추는
가을 가을

웬지 눈물만 솟아오르는
못된 놈들의 가을

가을 · 2

젓빛 별판 위로 바람이 울고
갈라진 논바닥에 낱알 줍는 아낙네
굽은 손을 호호 불며 날리는 티끌은
신품종 통일벼, 한 가마에 3만 원짜리
철없는 지랄 바람에 침을 뱉고 돌아서서
순풍아 불어다구
시디 순하게 불어다구

어린 들새 울음은 노을 속에 침몰하고
땅거미가 죽음처럼 기어드는 별판에
사나운 바람이 치맛자락을 희롱하면
누렇게 뜬 아낙의 얼굴 위로
야원 가을이 땀한다

새 · 1

별빛이 죽어 내린
한 치 쇠창살에
검은 새
도시의 밤을 운다

숨죽여 하늘을 바라보고
선지 빛 검붉은 거리를 굽어보고
공장에서 일하다 쫓겨난
순이의 각혈처럼 토해 낸
새까만 울음

찢어진 거리의 비명이라도
갈라진 굴뚝의 기침이라도

별빛마저 죽어 내린 밤
숨죽여 도시의 밤을 우는
검은 새여
이 밤을 지새워
피로 물든 거리를 토하러 하는가

새 · 2

한 마리 새라면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미련이 없으리
참자유로
나의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다면
아아 죽음이라도 두려워 않으리
끝없는 창공, 가없는 바다 위를
은빛으로 수놓으며
날고만 싶네
날고만 싶네
비록 엷매인 너일지나
너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야경

밤 그림자에 놀란 사내가
부은 두 눈을 비비고 섰다
아스러진 얼굴은 짓눌려 파리하고
산새 울음으로 지새우는
낯선 집 어둠 속에
온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휘감아 오는 산 그림자 속으로
미소조차 죽여 버리고 기어들면
무거운 발꿈치
지나는 바람에도 흩어지는 별빛

시커먼 밤안개 위로
조각난 어스름달이
세상의 반을 비추는 밤
찬 서리 위에 부서진 별빛

우스워라
우스워라
조각난 세상 속엔
모두가 반쪽이더냐

빈 집 모서리
갈라진 달빛 아래

반쪽이 난 얼굴의 사내가
배를 움키는 고향 집 야경

우물을 파자

우리들의 방
그 창문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어둡기도 하다
갈라진 하늘 틈으로
어디선가 빗발이 내리고
그 빗발 아래 지친 몸을 적신다
하늘은 푸르름 그 자체로 하늘이라 했던만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에 빗발이 선 까닭일까
하늘이 갈라진 까닭일까
저마다 손에 손에
저마다의 그릇들을 들고, 비여 오거라

아이들아
우리들아
우물을 파자
한 우물 속의 하늘은 갈라져 있어도
울지도 않는 우리들의 하늘
맑은 물 속에 우리들의 하늘이 있고
파문이 일지언정 갈라지지 않는다
깨뜨려지지도 않는다

우물을 파자
그리하여 때 묻지 않은 우리들의 하늘
땅 속에서 흘러나온 우리들의 하늘을 걸쳐 보자
가슴 아파 울먹이는 이 땅의 이 땅의 슬픈 아이들아

흙은 말한다

흙은 말한다
지쳐 잠든 여름 지기의 꿈을
손바닥이 갈라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도록
흙을 일구는
시름 많은 여름 지기의 꿈을

우리가 누워야 할 곳에
바람이 먼저 눕는 날
모래 바람 속에 돌아눕는 날
흙은 말한다
가슴속에 서려온
여름 지기의 설움과 한(恨)을

외진 별빛이 찾아드는 밤이나
질게 드리운 살기가
더욱 두터워 보이는 날이면
흙은 쉬어 터진 목소리로 말한다
일어나라 잠든 여름 지기여
일어나라 나의 아들이여

흙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한다
말한다 그의 아들이 걸어온 길을
싸움과 핏명울에 한숨 짓는 아들의 길을

숨겨지고 가리워진
피맺힌 여름 지기의 길을

누구 였던가
그 누구 였던가
나의 아들에게
죽음보다 깊은 잠을
밤보다 더 깊은 어둠을 강요하는 이는

흙은 말한다
길고 긴 어둠 속에서
숫돌에 닳을 가는
내 아들의 질은 설움이
복받쳐오는 설움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를

반노(叛奴)의 노래

쓰러지지 말자
이미 거역의 깃발을 들었으니
다시는
다시는 쓰러지지 말자

연륜이 모질어
너의 날개 접어 두었으나
부러지지 않는 것
격일 수 없는 것
보아라, 때꿀산 너머에
아침이 오고 있지 않느냐

들어 보아라
자라나는 벼 포기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느냐
두런두런 수군대며
빈손으로 일어서는 손길들의 숨죽인 아우성이!

들어 보아라, 叛奴여!
억눌린 땅에 뿌리박는 손들의
갈라진 등짝과 우물 패인 볼에서
울어나오는 저 반역의 노래를!

반노(叛奴)여, 보아라!
꺾이고 또 꺾였을지라도

이제 다시는 칼부림에, 화약 냄새에
쓰러지지 않겠노라고
기름투성이 굵은 손마디로
각혈 마르지 않는 입술로
목 놓아 부르는 저 반역의 노래를!

반도의 노래

빼앗긴 땅에서 부르는 노래

-동두천에서

이곳은 빼앗긴 땅
순결한 나라의 허리를 꿰고
가슴을 주무르는 노린내나는 품 안에
시커먼 팔뚝 안에
안겨, 안겨, 빼앗긴
우리의 땅
신식민지 파쇼공화국

거리마다 질게 분바른 여인들
팝송에 흔들리며 교성을 지르며
브래지어 깊이 꽃힐
달라를 기다리며
속살 비치는 옷자락으로
양키 웰 컵을 외쳐대는 땅
신식민지 파쇼공화국

지금은 봄이지만

-제12대 총선을 보고

휘장을 단 사람들은
엄동설한을 일러 봄이라 한다
얼어붙은 광장에서
짓밟히는 민주의 비명이 들려오는
지금을 윤기 흐르는 사람들의
봄이라 한다
-그러나 봄이 아니다
여의도 뒷골목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지금은 결코 봄이 아니다

기름 바른 이들은
말빨 좋은 공약을 남발하는 이들은
봄이야, 호접 쌍쌍 춘삼월이야 떠들어대지만
아니다 민주의 시신이 섯강 바닥에 또다시 잠드는
지금은
지금은 결코 봄이 아니다

어찌하리
나의 가슴엔 날이 선 비수가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가 꽃혀 있는 것을

남들은 바보가 되라 한다
흙이나 파헤치고 시궁창을 빨아먹는
거러지가 되라 한다

지금은 봄이라지만
우리의 봄은 아니다

(1985. 1)

잘못 들은 이야기

민주라고 떠들어댄
녀석의 말은 잘못 들은 걸로 하자
잘 들어보아야 거짓말뿐이고
못 들으면 그만인
높으신 상전의 말은 잘못 들은 걸로 하자
쪽발이 잠시 물러나고 양키·로스께 들어오면서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는 잘못 들은 걸로 하자
아니, 듣지 않은 걸로 하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만 못하니
듣지도 믿지도 말자
믿어 보아야 등짝 후려 패고
돈 벌게 해 주면 뺨질 뺨질 안면 까는 게
그 녀석들 아니더냐
우리네야 피골이 상접하든
뱃가죽이 등창과 인사를 하든 아랑곳없이
민주·선진으로 끝내 버리는 게 아니냐
덕유산 선언이니
국제 수지 흑자니 하는 눈가림 얘기
못 들은 걸로 하자
듣지 않은 걸로 하자

(1986·여름)

연옥의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핏빛 바람이 부는 연옥의 거리는
피를 부르고 있는 그 거리는
누군가의 가슴에
알 수 없는 의미의 총부리를 겨누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충혈 된 눈동자로 가득 차 있다

푸른 깃발 날리며 돌아올 그대들을 위하여

슬프지 않은 두 젊은이에게

그것은 아픔이었다
하얀 피를 두른
우리 모두의 날선 아픔이었다

목이 터져라 외쳐도
길길 거리는 사람들
“미쳤군.” 소리가 들릴 뿐
아무도 떨리는 가슴을 잡아 주진 못했다

그날
그대들이 날린 하얀 종이들
그 위로 핏발이 서고
뭉둥이와 검은 바퀴 자욱이 배어날 때
가슴은 터질듯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대, 돌아오라!

흐드러진 진달래
피울음 올던 날, 그대
그대
소리치며 떠났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야원 반도의 아들이여
활활 타오르던 불길로
찢어진 꿈 부여안고
아, 소리치며 소리치며
“양키 용병 교육 철폐하라!”

지금도
그대 꽃다운 녀 위로
독재의 굴레 씌워진 지금도
살아오는 그대여
살아오는 그대여
그대의 불길은
우리들의 숨죽임을 사르고
우리들의 비겁함을 부수고
진정 우리들의 나약함에 경종을 울렸다

그대
돌아오라

우리 시대의 해묵은 굴욕의
사슬을 끊으며 뿌리치며
돌아오라!
그대, 타오르는 불길로
그대, 쓰러지지 않는
함성으로 돌아오라!

그대, 돌아오라!
다시는 꺼지지 않는
해방의 불꽃으로!

슬프지 않은 그날이 오면

-이석규 대우조선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네 영혼은 남해 바닷가
잔물결 많은 섬 사이
물거품으로 사라졌구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가진 것은 두 팔과 두 다리뿐으로
구슬땀 흘리며
철판을 두들기던 흠뻑 네 어깨로
최루 연기 가득한
거제도 바닷가
자욱하게 깊은 안개 속으로
설운 비명, 슬픈 신음으로 떠났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
“나의 피 값을 달라.”
“나의 땀 흘린 만큼 받고 싶다.”
민주 노조 깃발 들고
스물 한 해 꼭 단렸던 네 가슴은
오랜만에 열렸는데
그것이 마지막 길
단 한 번의 절규였더나

(미완성 · 1987.8.22)

다시 우리들은

-1986년 10월

또 한번 우리들에게 굴레는 씌워졌다
아아!
또다시 그대의 목이
사슬에 졸리우는구나
그렇게도 정의롭고
그렇게도 떳떳한 자들이
또다시 우리와 그대의 목을 조르는구나

그대들이 부르짖는 것은
그것은 애국 시민의 소리가 아니다
이 땅의 자유를 바라는
야원 손들의 소리가 아니다

그대들은 배부른 자들
예순 나이로 아직도 귀먹은 채 눈먼 채 하는 자들
고혈압에 숨 가쁘고 비만중에 더위가 싫은 자
그것은 착취다
그대들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은 억압이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가루가 될지라도 하나하나 새 생명으로 태어나
자유를 얻고 민주를 외치리라

우리들은 매국노가 아니다
우린 얼어붙은 땅의 마지막 양심, 마지막 절규이다

돌아오지 않는 후배에게

-해경이를 위하여

우린 항상 웃을 수 있었다
비록 고달프고
가는 길마다 핏자국으로 얼룩지울지라도
바른 길이기에
웃으며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하나가 되어 웃을 수 있었다

시월의 마지막 날에
웃음 지으며 돌아오겠노라 하고
거리로 달려 나갔던 너는
단말마 비명만을 귓가에 남긴 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너로 인해
우린 침울했지만
수그렸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어두워 있어도
늘 푸른 별빛이 빛나고 있을
우리들의 하늘을

경아!
태산처럼 아득한 날에도
웃음으로 함께 하던
경아!

강해야 한다
결코 간악한 적 앞에 굽히지도
부러지지도 말아야 한다
교활한 웃음에 속지 말고
음모 섞인 험박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상처투성이 젊음으로 남을지라도
투사의 길은 웃으며 가야 한다던
우리를 잊지 말자
옳은 길을 걷고 있기에
쓰라릴지라도 당당할 수 있었던
너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짓밟히고 쥐어뜯긴 상처에서
피고름 흘러며 돌아온 그날
작은 우리들의
피울음이 합쳐
구름 걷힐 하늘 아래
더 큰 웃음으로 만날 그 날을 믿지 않느냐!
경아!
이 땅의 피 흘리는 아픔의 딸아!

이제 아무도

이제 아무도 침묵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아무도 숨죽이려 하지 않는다
이제 아무도 앉아 있으려 하지 않는다

끓어오르는 반도의 오월
피구름으로 가득 채운 반역의 무리
흡혈의 무리가 권좌에 오르는
주절대는 거짓말이 판을 치는
아! 부끄러운 한반도 남쪽에서
이제 아무도
두 주먹 불끈 쥐고 뛰쳐 일어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민주를 떠들던 자들은
꽁무니에서 큰소리만 쳐대던 자들은
권력놀음, 의식 놀음에 눈이 어두워
반역자의 피 묻은 손과 악수를 하는
이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
이제 아무도
아무도 겨울 그늘에 움츠려 있지 않는다

눈물만 삼키고 있지 않으려 한다
서울에서 수원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들끓어 오르는 제주에서
아아! 강간 당한 한반도 남쪽의 구석구석에서
보라! 삼 년 가뭄
들불처럼 일어나는 저 불길을

손 무덤을 들고 일어서는 노동자가
날 선 낫을 치켜든 농부가
채탄 곡괭이를 어깨 높이 올린 광부가
무너진 블록조각을 움켜쥔 철거민이
보라! 하나 되어 일어서는
저 거대한 물결을
그리하여 한강보다 도도하게 흐르는
아아! 저 힘찬 항쟁의 물결을

지금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또다시 굴욕의 시대를 만들 수 없다

저만치 보이는
민중의 나라, 민주의 신새벽을
상처투성이 죽음으로
당겨올 때까지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새빨간 거짓말
그것인지도 몰라

아무도 없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지도 몰라
어울림 없이
혼자만 지켜 나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지도 몰라
감상
이것인지도 몰라

그러나 삶은 오로지 투쟁
이것뿐인지도 몰라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
불의 높이 너 가는 길의 앞에 있으면
그것을 건너라
깊은 물이 있으면 헤엄쳐라
결코 돌아가지 마라

반도의 노래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게 불을 붙여다오
조각나고 야위었을 지라도
마른 장작이 더 잘 타는 것
내 배를 탄 백성이 원한다면
자! 불을 붙여다오
남도의 전봉준이가 살랐던,
기미년 유관순이가 붙였던 불
이국땅 시베리아
모진 눈보라를 녹이고 훨훨
타오르던 불
60년 4월 다비테들이 붙이고
70년 전태일이가 붙였던 불
김경숙이가 붙이고
사북에서 타오르던,
삼남의 시민들이 피로 태운 불
종만이, 기일이, 영진이, 세진이, 재호, 동수……
수없이 붙여 타오르던 불을
자! 내게도 붙여다오
야원 몸뚱아리 재가 되어
이 땅의 백성이 기름질 수 있다면
머지않아 다가올
아침의 광명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다면
자! 불을 붙여다오

(1986. 여름)

민주의 녀치여! 부활하라!

민주의 넋이여! 부활하라! 죽음의 언덕을 넘어!

-80년 5월, 민주의 넋으로 산화하신 영령들께 바칩니다

* 1988년 5월항쟁 계승주간 중, 인문대 학생회장의 자격으로 지어 낭송한 시

님의 장렬한 죽음 위로 폭압의 굴레가 씌워진지 8년
찢기운 땅, 상처투성이 한반도에 몸서리치며 울부짖는 오월이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님이시여!

진정 거역할 수 없었던 역사의 부름 앞에 알몸뚱이로 나서

어두운 땅의 적막을 깨뜨렸던님이시여!

님의 외침은 우렁찬 북소리로 새벽을 알리고

님의 몸짓은 거센 바람으로 잠든 민중의 바다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기나긴 굴욕의 세월 속에서 잠시 비추었던 새 아침의 햇살 위로
파쇼의 먹구름이 뒤덮으려 할 때

님이시여! 당신은 엄청난 반역의 음모를 피죽음으로 거부하셨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는 그 잔악한 아성을 쌓을 수 없었던

반역의 무리가 휘두르는 총칼 앞에 님의 육신은 갈갈이 찢겨져 가고

그 억울한 영혼마저도 짓밟혀야 했습니다

님을 살해한 자의 안방에선 동강난 조국의 땅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양키 놈들의 음흉한 미소가 돌아나고 있었습
니다

님이시여!

당신의 울부짖음이 한맺힌 통곡으로 일어섰던 그 몸부림이 불순
했더라 말입니까

18년 모질었던 폭압의 세월을 불사르고, 쓰러져 가는 나라의 운명
을 바로 잡으려던 것이 과연 대역죄인이란 말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님의 아들, 님의 딸, 님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대검에 난도질당할 때

몸뚱아리 하나로 일어섰던 것이

아아! 당신을, 이 땅의 뜨거운 양심을 짓밟은 이유가 될 수 있더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민주쟁취, 민중해방의 정기로 오욕과 굴종의 역사를 불사르고자
했던 당신은

당신은 민주의 화신이었습니다

폭도가 아니었고 불순분자는 더더욱 아니었던,

가장 순결한 한반도의 아들딸, 님은, 당신은 진정 격일 수 없는 이
땅 최고의 양심이었습니다

님의 그 원통한 죽음 위로 당신을 살해한 자가

민족의 가장 치욕스러운 반역자가 권좌에 군림하고

님의 죽음 뒤로 수없는 치절한 죽음이 뒤를 따랐습니다

김세진, 이재호, 박종철, 이한열, 이석규, 오범근, 최윤범... 반도의 남단을 태웠던 님의 죽음 뒤로

말로 열거할 수 없는 이 땅 4천만 민중의 아들 딸이 쓰러져 있습니다

모진 고문에, 파쇼정권의 살인죄루탄 앞에, 사인도 모르는 채 쓰러져 있습니다

철거당한 보금 자리의 압사당한 죽음, 수탈당한

농지에서 약을 마시며, 지옥같은 노동의 현장에서

울분을 삼키며

파쇼가, 학살의 무리들이 할퀴고 간 자리마다 억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척박한 땅에 독재의 철옹성을 쌓으려 했던 학살자의 악랄한 음모를 불사르려 수많은

동지들이 당신의 뒤를 따랐고 이 땅은 살아남은 자들이 부끄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님이시여!

우리는, 진정 우리는 어제의 우리일 수 없습니다

위대한 보통사람의 포스터가 당신의 핏자국 위에 교활하게 자리잡는 오늘

당신의 피죽음을 팔아 권력에 눈이 어두운 자들만 설치는 오늘

아아! 이 땅의 민중들은 죽음 아니면 침묵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오늘, 우리는

님이시여! 우리는 오늘 님의 그 뜨거운 죽음을 부둥켜 안고 일어서렵니다

님의 피로 얼룩진 그 깃발, 자유의 그리움으로 붉게 물든 그 깃발

총탄에, 대검에 찢겨진 그 깃발을 굳게 움켜쥐고 일어나렵니다

오욕의 역사는 투쟁으로만 깨트릴 수 있고
해방의 그날은 피눈물의 강을 건너야만 올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님의

죽음과 함께 가렵니다

민주쟁취, 민중해방, 조국통일의 길을

님과 함께 힘차게 힘차게

물려섬 없이 싸워나가렵니다

우리들의 발자욱 하나하나에 가득가득 핏물이 고이고 끝내는 불붙은 양심만

남을 지라도 한 조각 분노의 원혼이 될지라도

두려움 없이 외로운 싸움의 길을 가렵니다

님이시여!

진정 잠들 수 없는 불멸의 혼이시여!

민주의 피울음으로 해방의 함성으로

부활하소서, 원한 맺힌 죽음의 언덕을 넘어!

님이시여!

님이시여!

진정 잠들 수 없는 불멸의 혼이시여!

광주민중봉기 9년 5월 9일

부활하라, 오월이여! 해방의 불꽃으로!

*1987년 5월항쟁 계승주간 중, 숭실대의 다형문학회 회원들과 함께 공동창작한 시. 박래전이 집중적으로 집필한 부분은 제2부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뿐이나 공동창작에 참여한 다른 이들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그 전문을 실는다. 이 장편연작시는 당시 그림과 함께 판넬로 제작되어 전시중이었으나 노랑진경 찰서의 압수·수색을 받아 전량 탈취되어 파손되었다

서시

먼 이국땅 아우슈비츠의 비명이 아니었다
철쭉 지는 오월
울분의 봄을 가득 채우던 함성소리, 비명소리,
누군가
내 형제의 살을 찢어대는 소리
총성소리, 승리의 함성소리, 어지러운 군화발소리
이어 들리는 무한궤도 뺨격이는 굉음에
알몸들이 으스스해지는 소리
그 소리들은 결코 남의 나라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아우슈비츠의 소리가 아니었다
양키놈 노린내와 군화발 무게에 짓눌린 어둠을
뚫고
우리 땅, 빼앗길 수 없는 나라
반도의 남단에서 일어선 아아! 정의의 함성
거침없는 해방의 몸짓이었다

폭정의 구름을 뚫고 불어도인 드센 바람의 시작이었다
야수의 총칼 앞에 맨몸 맨주먹으로 떨쳐 일어섰으나
끝내 총을 잡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땅,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나라의 최고의 양심이었다
누가 그들을 역적이라 하는가
누가 그들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우려 하는가
누가
굴종을 거부하고 예측의 굴레를 벗어버려
피흘려 도륙당한 그들에게
물려가라 나라를 송두리째 삼키고
내 부모 내 형제를 살해한
진정 용서할 수 없는 반역의 무리들아
물려가라 양키 쪽발이에 기생하여
민주학살, 민중압살 온갖 반역 꿈꾸는
사악한 무리들아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의 무리들아
누가 역모의 누명을 씌우려 하는가
물려가라 흑심이 무리들아

제1부

1

YH사건 당시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산화하신 김경숙열사를 추모하여

배고파 못살겠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잔인한 여름
1979년 8월 당신은
꽃다운 청춘을 버리고
폭행과 파괴의 죽음을 버리고
일어섰습니다
18년, 그 기나긴 독재를 등에 업고 다니던
허울 좋은 유신의 껍질을
찬바닥에 눕히려
당신은 가녀린 손목 끊으며
저 신민당 당사에서
목놓아 울며 울며
처절히 떠났습니다
아 어찌 알았을까요
당신의 죽음이 불꽃 되어
유신의 종말을 예고하고
피로써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됨을
그리고 당신의 함성이 거리마다 불붙어
남으로 남으로
울려 퍼질 줄은

2

부마민중항쟁은 18년 유신독재의
끈질긴 숨을 끊어버렸다

내가 태어난 이 땅의
남쪽 바다에서는 연일 파도가 범람하였다
굳게 쌓아 올린 방파제를 넘어뜨리며
넘실대는 파도는 노한 눈빛으로 침몰해야 할 것을
침몰시키기 위하여
어느 한 곳 놓치지 않고
거리거리 골목마다 출렁거렸다

내가 태어난 이 땅
반도의 마지막 거리
부산에서는 하루하루 다르게
태풍이 치고 검은 구름이 덮쳐왔지만
젊은 가슴들 하나 하나는
성난 파도 되어 잠든 물고기 일으켜 세워
함성으로 분노로 돌진해 갔다
태극기로 펄럭였다
마침내 기름끼 가득찬 유신의 분비물 뿐인
절망의 거리에 승리의 닻을 올렸다

제2부

1

16일의 햇불시위는 18년간의 암흑을
민주화의 대중적 햇불로 밝히려는 의지였다

이미

그의 푸르름을 잃어버린 오월이다
녹두장군의 피맺힌 외침에 되살아난
광주벌판의 노여움마저 붉게 물들인 오월이다
푸르름을 자랑할 양 움트고 있던 새싹에게로
붉은 생명을 치솟게 하려는 오월이다

칠혹 속에 쏟아낸 햇불은
광주의 몸짓을 불사르기 위함인가
오월의 푸르름을 되살리기 위한
가열찬 몸부림인가

광주시민들의 분노로 타오르는 칠혹 속의 햇불은
어느 누구의 공포가 깃드는 서러운 명령에도
끓일 줄 모르는 절대적인 타오름이다

2

이제 간악한 계엄군의 만행 앞에
민중의 피는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살육의 검은 심장을 갈랐을 때부터
5월의 벼는
포도 위의 혼란한 숨기운으로
삶의 끊어진 핏덩이를 주웠다
이제야 억눌렸던 민중이
권력의 도구였던 총들이
목숨을 짓누르는 만행 앞에
아카시아 뿌리처럼 넘어졌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모두의 피가 총칼 앞에 짓밟혀
서로의 이름을 통곡으로 부르며
간악한 췌덩어리의 응집 위에 뿌려져
산화시킨다
금남로에서
분노하는 들판에서
저기 다가오는
해방의 길 위에서

미연합사령관 존·위컴은 “한국민족은
쥐새끼와 같아누가 지배를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순결한 황소와 같은 나라
서슬 푸른 일장도 앞에
풀뿌리 뜯어 주린 배 채우던 나날을
핏빛 안개 개여 해방의 매듭을 짓기 위해
강한 태풍이 몰아칠 찰나
왔다, 저들이
미소 띤 입가에 치즈와 비스킷을 든 채
양의 털을 쓴 늑대와 같이
40년의 잔혹한 식민지 생활이
또다른 수렁으로 매몰되어 버렸다
조선총독부-중앙청으로 개편
적산, 독점토지 몰수, 과잉생산물 소비지로
해방 아닌 해방을 맞이한 민중들은
창살없는 감옥에서 가슴까지 자물쇠가 채워져야 했다
보릿고개 원성 높아
삶의 끝에 서있던 농민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려는 우리들은
머리색깔이 다른 또 다른 적들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미제의 각을 뜨고
미제에 의해 원격조정당하는
로보트 이승만을 처단하자고
남도 끝 호남벌의 자식들이 일어났다

동아시아의 전략기지
핵무기로 치장된, 허리 잘린 나라여!
하늘에서는 정찰기가 살인 예고장을 돌리고
바다에선 불침함대 경적을 울리며
학살의 채비를 갖춘 채 음흉한 웃음을
띠고 들어왔다

팔십 여 명의 남녀 중학생을
금악 벌판의 원귀가 되게 만들고
발가벗긴 빨치산 젊은 아내와 딸을
나무기둥에 묶어 표창던지기 표적으로 삼다가
젓가슴을 도려내 폭포 속으로 던져버리고
바다에서 돌아온 뱃사람
빨갱이의 종말을 보여준다며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전봇대에 진열시켜 놓고

남편 잃고 자식 잃은 아낙네들은
피의 울분과 통곡으로
분노의 혀를 깨물었다

4·3학살 이후 저들의 만행은 눈 부릅떠
쳐다보는 무등산을 옆에 두고
또 다른 학살을 시작했다
반지르한 마뺑을 달고 있는
민족의 반역자와
한국인을 쥐새끼라 한 양키너석이
머리를 맞댔다

광주를 피바다로
5월을 피로 물들여라
반기를 드는 자 죽어 마땅하니
밟아라
마음껏 신나게 밟아라
우리가 눈감아 줄테니

4

광주에서 타오른 불꽃은
함평으로, 무안으로, 목포로
그 불씨를 퍼뜨렸다

오월의 하늘은 붉게 젖었다
차디찬 사슬 속에서
깨치고 일어나는
광주의 피어림, 그 절규의
몸짓은 그만의 아픔이 아니다
총탄에 가슴뚫린 시신의

악취는 그만의 냄새가 아니다
오월 그날은 광주만의 전율이 아니다
전율이 아니다
물이 닿는 곳, 길이 있는 곳
붉은 하늘이 어둠처럼 내려앉는 곳
광주의 비명은
메아리를 토해 낸다
강산의 연지빛 노여움은 퍼져가고
끝끝내 한나라 한민족의 분노는
푸른 제복 쇄사슬로
덮어 버릴 수 없는 것
일어나 가슴 찢린 아픔으로
민중의 햇불은 뜨거워진다

시민 여러분! 지금계엄군이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순의 마지막 가두방송

우리는 패할 것을 안다 그러나
 저들의 손에 또다시 도륙당할지라도
 이 땅, 피로 적신 우리들의 땅을 빼앗길 수 없다
 피로 찾은 자유, 죽음으로 얻은 해방을
 고분고분 넘겨줄 수 없다
 패할지라도, 찢겨진 원혼이 될지라도
 끝까지 싸우리라 싸우리라
 계엄군이 들어온다면
 이 밤을 넘기기 전에 계엄군이 쳐들어 온다면
 자! 총을 들어라
 무기력하게 죽을 순 없다
 핏빛 새벽이 다가온다
 계엄군은 탱크를 앞세웠단다

“제게도 총을 주세요

나도 싸울 수 있어요“
 어린 외침이 있었다
 “고등학생들은 먼저 투항하라
 살아야 한다 역사의 산증인으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흐느낌이 목을 메웠다
 죽을지라도 우린 물러설 수 없다

도청이 포위되고
 총탄이 쏟아졌다
 학살의 군대가 담을 넘는다
 대검을 쥐고 총을 쥐고 담을 넘었다
 아! 우리는, 우리는
 상원이가 쓰러졌다
 우리들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른다
 소나기처럼 총탄이 쏟아지고
 악마의 더러운 발이 우리들의 목을 밟았다
 우린, 동지들이 흘린 핏물 위에
 하나 둘 쓰러져갔다
 광주여! 광주여!
 아아! 우리들이 피로 찾았고
 죽음으로 지켜낸 거리 광주여!
 아아! 내 땅, 우리들의 땅
 광주여!

피에 젖은 적막이 찾아들었다
 핏물에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학살자들이 우리들의 시체를
 끌어내고 있다
 아! 우리는 눈감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이 오기까지
 우리들의 흘린 피 위로
 뚜벅뚜벅 해방이 올 때까지

제3부

너는 아는가
 무참한 살육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 트럭에 실려
 압송되어 가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찌어 문드러진 시체를 문었음을
 광주천 온통 피로 가득 찼음을
 너의 악랄한 입막음으로
 한 노동자* 살이 지글지글 불타며
 어떻게 해서 수천명이 백팔십구명으로 탈바꿈되는지
 분노하며 쓰러져갔음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대령에서 보안사령관으로
 보안사령관에서 대통령이 되는
 이 나라 헌법에도 없는 절차를 밟는 동안
 휴전선에서 별들끼리 총질해대며
 어찌면 北이 쳐들어 온다고
 광주의 가슴에 대검을 꽂았던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배불리며 앓은 내 청나비가
 정말로 영원하다 믿는 것이냐

한반도 역사를 탄압으로 가로지른
어둠 가운데
장엄한 민중의 봇물 틀어 막고
너는 일순간 살별로 뒀다

각오하라 학살자여
우리가 광주를 잊지 못하고
네가 광주를 두려워 하는 한
우리네 민중은 영영 숨지 않는다
망월동 풀숲에 잠시
피고름 삭히며 누웠다가
80年 5月 18日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것
기어코 이루어내기 위해
이내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서 개기름 흐르는 네 마빤에
시퍼런 낮을 꽃고
목놓아 외치는
우리의 함성
민주주의여 만세!
민중 승리여!

* 1980년 5월 31일 광주항쟁 은폐에 분노하며 분신한 노동자. 김종태

당신이 꿈꾸던 세상은 아직도 멀기에
우리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冬花 겨울꽃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꽃일 수 없습니다

제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冬花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박래전 선배의 유고시

민중의 새 나라에서 다시 만나리

박래군

1

사랑하는 아우에게

실로 오랜만에 네게 편지를 쓰는구나. 출감 후 처음 쓰는 편지이니 꼬박 1년 반 만인 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편지를 나눌 필요가 없었지. 우린 서로 만날 수 없을 때가 되어야만 펜을 들곤 했으니까.

물론 난 아직도 네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비록 손 뻗어 어루만져볼 수는 없어도 넌 분명 우리 곁에 살아있다고. 주소는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 쓰지 않는다만, 너는 분명 기쁜 마음으로 받아 읽어주리라 믿는다.

네 시집 뒤에 실을 글을 쓰라고 하더구나. 보통 시집에는 발문이나 해설이 붙기 마련인데 네 시집에는 둘 다 어울리질 않으니 나보고 발문을 대신할 글을 하나 써달라는 거였다. 유고시집이기 때문이란단.

나는 쓰기 싫었다. 아니,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네 49제를 코앞에 두고서야 내키지 않는 펜을 잡게 되었다. 유고시집? 유고시집이라니! 네가 죽기라도 했다는 말이나? 직시할 수가 없었다. 두려웠다.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고 잔인했던 그 순간들이 되살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게다가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너의 시를 논할 자격이 없는 녀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네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이토록 많이 써놓았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와 살을 나눠가진 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이 성기고 모난 글을 써내려가게

만드는구나.

시에 대한 한 문외한이나 진배없는 내가 너의 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곤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한 네가 남긴 시편들을 놓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나 먼저 간다는 눈인사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바빠 가버린 네게 못 다했던 이야기나 나누고자 할 뿐이다. 너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네가 시로써 말하고자 했던 진실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될 수도 있으리라 믿으면서.

2

래전아

너를 마지막 본 것은 지난 5월 23일, 모처럼 내려갔던 고향집에서였지. 기억나니? 학생회 일을 맡고난 다음에는 거의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더니 옆친 데 댔친 격으로 그 위에 노량진경찰서 형사들의 수배망까지 겹쳐 오랫동안 통화만 하다 만난 그날은 얼마나 반가웠던지! 반월 큰 형님 댁에 들렀다가 고향집에까지 내려온 너는 나와 함께 자갈투성이 산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참외를 심었었지. 그게 마지막일 줄이야. 이 무심한 녀석아. 그게 정녕 너와의 마지막 만남일 줄이야. 그때 이미 죽음을 결심했던 것이었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식구들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찾아든 것이었나. 자주 눈을 들어 먼 산을 그윽히 바라본 것은 세상을 버릴 결심을 했었기 때문인 것이었나.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감춘 채 여느 때처럼 꾸부정한 자세로 꺼칠한 어머니 두 뺨에 얼굴을 부비며 네가 했던 말—“엄니, 작년에 형 나왔을 때 기억나요? 아버지 그랬잖아요. ‘헤, 네 놈들이 우리 래군일 죽일려고?!’ 어렵도 없다, 이놈들아!” 하하하……—자식들 자랑으로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뒤에 남긴 채 천하에 몸쓸 불효자가 되어 떠나야할 네 찢겨진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래전아, 나의 애간장아, 너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뱉었던 것이었나.

네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렇지, 너의 마지막 생일이 되

고만 지난 6월 1일이었지. 전화 달라는 연락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다 이열을 돌렸더니 “오늘이 내 생일이잖아. 잊었어, 형?” 하고 들려오던 너의 밝은 목소리—당황했던 나는 “잊기는?! 그렇지 않아도 연락하려던 참이었어.” 하고 허겁지겁 돌려댔지만, 그리고 아마도 너는 눈치채버렸었겠지만, 이제야 고백컨대 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단다. 너는 아무리 바빠도 이 보잘 것 없는 형의 생일을 꼬박꼬박 챙겨주었는데 나는, 이 못난 형은 선물은 커녕 기억하지고, 만나주지도 못했으니 웃음 띤 목소리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야속했겠는지……지금도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갈라질듯 쓰러온다. 틀어져버릴 듯 저며 온다.

이제와 용서를 빈들 무슨 소용이라.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날도, 내가 분신하던 바로 그날도, 내가 분신하던 바로 그날 6월 4일도 나는 야속한 형, 원망스러운 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너는 분신을 결행하기 불과 30분 전에 나를 찾아 ‘세계’로 전화를 했었다지. 그리곤 연락이 안 된다고 하자 쓰던 책이 잘 되거나 궁금해서 걸었다며 전화를 끊었다지. 죽음을 눈 앞에 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너는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 한자락 듣기를 애타게 원했는데, 뭔가 마지막 후련히 토해내지 않고서는 차마 눈 못 감을 피땀한 사연이 있었을텐데, 난, 바로 그 시간에 난,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너는 말없이 누워있지만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너에 대한 회한과 나에 대한 원망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구나

새벽이 되어서야 연락을 받은 나는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속에 앉아서도 완강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네가 그랬을 리가 없다고. 아니, 설사 네가 그랬다 하더라도 거뜬하게 툭툭 털고 일어서리라고.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찾아본 일이 없는 신(神)을 부여잡고서 나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병실 문을 열어젖혔을 때 나를 맞이한 너의 모습.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시커멓게 타버린 몸에서는 설 새 없이 진물이 흐르고, 숨결은 끊어질듯 이어질듯 가빠만가고, 막혀버린 기도, 영겨 붙는 가래, 마지막 안간힘으로 신음처럼 내뿜는 소리 “싸우자!” “학살원흉 처단하자!”……나는 털썩 무너져 내렸다. 울어서는 안 된다. 참아야 한다. 강해야 한다.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울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

짐은 다짐일 뿐 뇌리를 헛돌고 닳을 잃은 나는 기다시피하여 그곳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네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연락이 닿지 않자 어머니는 실신해서 링게르를 쫓고 누워계셨고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부둥켜안고 통곡을 터뜨리셨다. “래군아, 어떡하니, 래전이가 불쌍해서, 저대로 죽으면 불쌍해서 어떡해!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이놈들아, 내가 니들을 뭐하려고 공부시켰냐! 도대체 그까짓 운동이 뭇데!” 입술에 피가 배어 물리도록 이를 악물었지만 기어코 눈물은 흘러내렸다.

래전아. 너는 정말 죽어 가느냐. 해방과 통일을 기어코 네 두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면 내가,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끝까지 함께 싸우자던 네가, 우리 형제는 얼굴이 못생겨 열사가 되기엔 애당초 글러먹었다며 웃어 제끼던 네가 정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느냐. 심장병으로 가슴을 앓으시는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도 여전히 논밭에 매여 사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 네가 먼저 길을 떠나려 하느냐.

시시각각 생명이 빠져나가는 너의 육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너, 입술마저 아예 문드려져 버린 너,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야 가쁜 숨결이나마 내쉬는 너, 맥박감 지기의 녹색 곡선을 통해서만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너—그런 너를 지켜보고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해야 검게 그슬린 네 몸에서 흘러내리는 진물을 닦아내는 것 뿐 이었다. 진물에 흠뻑 젖은 거즈를 움켜쥔 채로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눌러 참는 것 뿐 이었다. 사랑이란, 동지애란 때로는 이토록 무력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뜻을 분노에 몸을 치밀며 말이다.

내가 분신을 결행한 후 마지막 숨을 크게 몰아쉴 때까지의 그 이틀 동안 그나마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어준 것은 어머니의 변화였던단다. 사람의 감각 중에 최후까지 살아남는 것이 청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네가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를 들었으리라 믿는다. 기

뻘고 벽찬 가슴으로 한 마디 한 마디 새겨들었으리라 믿는다. 너도 알다시피 어머니는 내가 끌려가 두들겨 맞고 징역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쇼크로 심장병을 얻으셨잖니.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로 하여금 불에 탄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까이 가시지도 못하게 했었던단다. 그런데 어머니는 실신에서 깨어나시자마자 완강하게 말리는 주변사람들을 모두 뿌리치시고 성큼성큼 내게 다가와 큰 소리로 외치셨단다.

“래전아, 장하다! 내 아들 래전아, 정말 장하다! 어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엄마랑 같이 싸우자! 이 에미는 너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엄마도 이제부터 너랑 같이 싸우마! 어서 일어나라!”

들었으리라 믿는다. 어머니가 신들린 듯 외쳤던 그 말,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붉히게 하던 그 말, 운동과 효도 사이에서 찢겨진 가슴을 피로워하던 네가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그 말을 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똑똑히 들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1988년 6월 6일 12시 23분—너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할 일을 다 못한 채 지상을 떠나 했던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부릅뜬 두 눈으로 조국의 하늘, 그 연옥의 하늘을 노려본 채. 탈진한 손으로 네 눈을 쓸어 감기고 병실을 나온 나는 태양이 작열하는 병원 앞 광장에 나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결코 읽지 않으리라 접어두었던 네 유서를 꺼내들고 그 위로 피눈물을 떨구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게 불을 붙여다오
조각나고 아위었을지라도
마른 장작이 더 잘 타는 것
내 배를 탄 백성이 원한다면
자! 불을 붙여다오

—「반도의 노래」 중에서

아직도 시만쓰고 앉아있어야 하는가?

아직도 헛소리나 지껄이는 우리이어야 하는가?

뜨거운 가슴 감추어두고

핏발 선 눈빛도 가리워두고

종잇장이나 매우면서 이 세월을 보내야 하는가?

—「시인에게」중에서

그랬다. 너는 시만 쓰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두 손에 4월을 움켜쥐고/ 5월의 칼에 맞은 혼들이 부르는데/ 그 아우성이 살아나는데/ 시멘트 바닥을 적시던 핏방울들이 울부짖는데’ (「시인에게」) 어떻게 종잇장이나 매우면서 이 세월을 보낼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발을 딛고선 이 땅의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너는 관념덩어리의 유희를 즐기는 ‘시인’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너는 시인이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시를 썼던 시인이었다. 스물 여섯 해의 짧았던 너의 생은 그대로 이 동강나고 짓밟히운 반도의 노래였고, 동터오는 새벽을 향한 가슴 벽찬 싸움의 시였다. 너의 행동은 곧 시였으며 너의 시는 곧 행동이었다. 네게 있어서 시와 행동은 결코 구분될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몸뚱아리의 불꽃이었다. 하나 뿐인 조국이 외세의 군화발 밑에 짓밟히고, 사랑하는 민중이 압제와 착취의 사술에 묶여 피 흘리며 죽어가고, 허리 꺾인 반도의 민족은 죽음의 공포에 몸서리칠 때, 너는 스스로를 버리고 떨쳐 일어나 싸움의 대열로 성큼성큼 나아갔다. 그때 너의 시도 너와 함께 떨쳐 일어나 새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착하디착한 민중이었다. 빼앗기고 짓밟히면서도 묵묵히 흙을 일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굳게 뭉쳐 일어설 때에는 폭풍이 되고 해일이 될 것임을 너는 누구보다도 굳게 믿었다. 너는 늘 들린다고 했었지. ‘억눌린 땅에 뿌리박은 손’

들의/ 갈라진 등짝과 우물 패인 볼에서/ 올라오는 저 반역의 노래를!
 '꺾이고 또 꺾였을지라도/ 이제 다시는 칼부림에, 화약 냄새에/ 쓰러
 지지 않겠노라고/ 기름투성이 굵은 손마디로/ 각혈 마르지 않는 입술로
 / 목놓아 부르는 저 반역의 노래를!' (「叛奴의 노래」)

비록 지금은 '어설픈 도둑님들이/ 쌍심지를 쏘우고/ 흠혈귀인양 빨아
 대는 곳' 이지만, '비루먹은 고향/ 두고 볼 수는 없는/ 말라 비틀어진 고
 향' (「고향」)이지만, 너는 그 곳으로 돌아가려 했었지. '흠에서 나서/ 흠
 으로 살다가/ 잠든 흠을 깨우기 위해/ 흠을 떠났던' 너는 '흠을 떠나서
 는/ 흠을 깨울 수 없음에' (「흠으로 돌아와서」) 조만간 학생운동을 정
 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지. 돌아가
 '잠든 태양을 깨우고/ 가슴 속에 웅어지진恨덩이 마음껏 사르고/ 살라
 서 가시나무숲 불태우고/ 밭을 일구' 겠노라고, '기름진 살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밭을' (「농사꾼의 노래」) 일구겠노라고.

빠져들었던 가난과 그 가난 속에서도 꽃피웠던 웃음-너를 낳았고 너
 를 길러준 그 지리지도 못생긴 고향에 대한 이야기 없이는, 그 고향땅
 논밭에서 똥굴이 휘어가시는 부모님에 대한 너의 사랑과 자랑을 이야
 기하지 않고는, 너의 인간 됨됨이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운동에 바친
 너의 삶을, 네 삶의 족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너의 시를 이해할 수 없
 으리라. 「아버지의 고독」도, 「벼」도, 「농약」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

래전아, 네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농민의 아들' 담게 마음
 여리고 착해 터진 너석아. 우직하고 타협할 줄 몰랐던 너는 말만 앞세
 우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스스로
 가 내뱉은 말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유주의적 기질의 사람들을 싫어했
 었지. 다만 이 민족, 이 민중에 대한 순결한 사랑만으로 운동을 시작했
 던 너는 거창하고 번지르르한 논리를 앞세우는 자들보다는 묵묵히 책
 임을 다 하는 성실한 '일꾼' 들을 믿는다 했지. 해방을 말하고 혁명을
 논하는 자가 어떻게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겠느냐고
 말하던 너. 그런 약아빠진 놈들이야말로 운동을 망친다고, 우리의 대열
 을 분열시킨다고, 아직도 적들은 기고만장하여 철벽같이 버티고 서 있는

데 서로 헐뜯고 싸우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자들은 바로 민중의 배신
 자일 따름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던 너. 쉬어야만 나올 수 있는 신경성
 만성피로의 증세마저 외면한 채 한 번 잠에 떨어지면 일어나기조차 힘
 들어하던 병든 몸을 앞세워 실천하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며 주변사람
 들을 독려했던 너. 해야 할 일이 주어지면 며칠 밤을 하얗게 새워서라
 도 끝장을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던 뜨거운 정열의 너. 다시금 되살아오
 는 너의 술한 잔영들 앞에서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너
 는 내가 남긴 시편들을 통해서까지 살아남은 나를, 우리 모두를 함께
 가자 다그치는구나.

동지여!

이제 우린 안다

책상머리의 열정

골방 속의 활화산은

막걸리 한 잔의 술잔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푸른 하늘 밑에서 작열하는

한 알의 사과탄 앞에 소리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대에게」중에서

그래. '책상머리의 열정'과 '골방 속의 활화산'을 갖고 무얼 하겠느냐. 새날을 향해 치달려가는 이 길이, 네 뒤를 따라, 아니, 너와 함께 어
 깨 걸고 달려가는 이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결단코 '바람일 수
 는 없다/ 한 번 불어 흠먼지 일으키고/ 사라져가는 바람일 수는 없다'
 (「바람일 수는 없다」). 맹세한다, 래전아, 믿어다오, 래전아. 부끄러움
 도 두려움도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이 아득한 거리도 모두 떨치고 '진
 정 우리는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그대에게」).

래전아. 키는 멀대 같이 크고 갱마른 얼굴엔 광대뼈가 볼거져 나온 볼품없던 녀석아. 상처자욱과 만성피로로 인한 흑점들이 피어나 얼핏 보면 험악해 보이기까지 했던 영성한 모습의 못난 얼굴,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이제는 정녕 사진으로 밖에는 대할 수 없는 것이냐. 얼굴이 못 생겨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못난 놈들끼리만 통하는 인정과 의리를 맘껏 누릴 수 있으니 오히려 좋지 않냐며 웃음 짓던 시골뜨기 촌놈냄새가 폴폴 나던 녀석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쉽게 철들어야 했던 삼형제(「그날, 그날이 그날까지 엄니」) 중에서도 막내였던 너는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던 진정 사내다운 녀석이었다.

대학에 들어가 개인적인 방황과 절망을 떨쳐버리고 비로소 역사적인 삶에 눈을 떠가던 무렵, 처음으로 끌려간 경찰서에서 구타와 협박을 못 이기고 조직을 불고 나와선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네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네 뒤통까지 싸워주겠노라고 큰 소리 치며 너를 휴학시키는 데 한몫을 거들었었지. 그러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강제징집 되어 흑한의 전방철책선 앞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어린 네 녀석은 부모님들의 무너져버린 역장을 고스란히 안아 일으키며 이 못난 형을 얼마나 원망스러워 했을런지.

내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너와 함께 자취를 할 무렵도 떠오르는구나. 그때도 나는 너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 대하지 못하고 철없는 동생으로만 대했었지. 운동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부모님을 모시라고. 나는 현장으로 갈 테니까 너는 시나 쓰라고(「불꺼진 창」). 좌충우돌, 오류투성이의 째랐던 현장생활을 한미은행점거농성으로 마감한 나는 또 다시 네게 집만 지운 채 무책임하게 징역을 떠나버리고…… 아아 내가 해왔다는 소위 그 '운동'이란 것이 네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담이었을까. 건방지고 잘난 척 할 줄만 아는 나라는 인간이 네게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래전아, 그러나 너는 무엇 하나 베풀 것 없는 이 형에게는 너무도 과분한 동생이었다. 옥바라지를 도맡아 면회오기와 편지쓰기를 거르지 않았고 무력감에 빠져있는 나에게 마치 형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주듯 용

기를 북돋아주곤 했었다(「당신의 푸른 옷」 「밤이 새도록 불을 켜두는 이유」). 뿐만 아니라 다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가열찬 싸움의 대열 그 선두에 섰으며 그 때문에 몇 번의 고초를 겪기도 했다(「모순·1」 「달아! 네가 보고파서」).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잠시 학원을 떠나 있을 때마저도 너는 끊임없이 민중의 현실을 내 온몸으로 부둥켜안으려 했다(「손씨」 「절통」).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도 너를 옹아낼 수는 없었다. 내가 옥중에서 받은 너의 마지막 편지가 떠오르는구나. 형,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만 하겠어. 어쩔 수가 없어. 길이 이것뿐이야.

너는 다시 학생운동에 복귀하였고, 대공분실을 전전하였으며, 수배에 쫓기면서도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싸움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을 불꽃으로 장식하였다. 아니, 그 불꽃을 '싸움의 끝' 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끝없는 시작이자 영원한 부활이다. 그 부활은 아마도 '패랭이꽃' 이나 '겨울꽃(冬花)' 의 모습으로 현현할 것이다.

겨울 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冬花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冬花」에서

래전아. 사랑하는 나의 동지, 래전아.

사람들은 네가 죽었다 한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허공을 보며 말하기를, 네가 죽었다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달려와 억센 두 팔로

나를 안아줄 것만 같은데, 네 그 큰 입을 활짝 열고 소리 높여 웃음을 터뜨려줄 것만 같은데, 숭실대 총학생회실에 가면 일에 몰두해 있는 네 모습을 맞닥뜨릴 것만 같은데, 사람들은 네가 죽었다 한다.

정말이나. 너는 정말 죽어버렸느냐. 내가 내 이 두 손으로 묻고 흙을 덮어준 것이 정말 너였느냐. 너의 관을 꺼안고 래전아, 같이 가자, 너 혼자선 못 간다, 통곡하시던 어머니를 너는 보았느냐. 한 평도 안 되는 그 묘지에 너는 정말 묻혀있는 것이냐. 어머니도 아버님도 이제 우리 형제들 하는 일을 이해하신다는데, 네가 그렇게 걱정했던 분들이 너와 함께 싸움의 대열로 나서시겠다는데, 자꾸 뒤로만 물러서던 너의 학우들이 너를 부르며 저렇게 싸우러 떠나가고 있는데, 래전아, 너는 정말 죽어버린 것이냐.

어머님은 요즘도 널 만나신단다. 너와 만나 어이구 내 새끼, 내 귀여운 막내새끼 하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신단다. 그 놈이 그렇게 독하게 맘먹은 줄 알았었다면 막아선 안 되는 건데 하고 후회를 하시면서 한 시도 너를 잊지 못하신단다. 죽어가면서도 네가 그렇게 걱정하던 어머니 아버님이 이토록 너를 그리워하시는데 너는 정말 한 번 찾아줄 수 없단 말이나.

그래, 몸으로 오기 어려우면 뱃으로라도 와라. 광주영령들의 뱃이 우리와 함께 살아 싸우듯이(「민주의 뱃이여! 부활하라! 죽음의 언덕을 넘어!」), 너도 뱃으로 살아와 우리와 함께 나아가자. 역겨운 새벽에라도 때꼴산 너머로부터 어둠을 거둬내며, 찬바람 몰아치는 한겨울에라도 몸 비틀어 피어나는 꽃으로 오너라. 숨이 킁킁 막혀올지라도, 불에 데인 두 눈이 자꾸만 감겨올지라도, 눈감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오너라. '우리들의 숨죽임을 사르고/ 우리들의 비겁함을 부수고' '우리 시대의 해묵은 굴욕의/ 사슬을 끊으며 뿌리치며/ 돌아오라!' 그대, 타오르는 불길로/ 그대, 쓰러지지 않는/ 합성으로 돌아오라! '다시는 꺼지지 않는/ 해방의 불꽃으로!' (「그대, 돌아오라!」) 우리의 노동의 자리에, 우리의 싸움의 자리에, 최루탄 연기 자욱한 그 자리에 메가폰을 들고 짱돌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시를 외쳐 부르며 돌아오너라. 이 어두운 죽음의 시대를 불사르며 너 그렇게 살아오너라.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이다. 너의 스물여섯 청춘은 그러나 한 번의 죽음으로 마감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처음 투쟁의 길로 들어섰을 때 이미 네 목숨을 조국에 바치지 않았느냐.

너는 죽지 않았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숨결이 끊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운동적 삶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누구를 죽었다고 말할 때는 오직 그가 역사와 민족과 민중을 배반하고 적에게 동지를 팔아먹을 때뿐이다. 너는 끝까지 싸움을 다 하였고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그 나라는 민중의 새 나라이다. 너는 그곳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외치는구나, 죽지 말라고. 육신의 죽음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혼은, 투쟁의 정신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너를 죽었다 하지만 너는 찬란히 살아있어, 스스로를 살아있다고 믿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구나. 육신의 죽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 민중의 나라에서 만나 영생의 삶을 마음껏 구가하자고.

그래, 만나리라, 래전아, 너를 만나리라. 민중의 새 나라에서 너를 다시 만나리라. 비겁함과 안일함을, 나약함을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살아남은 육신의 힘을 다하여 가열 찬 싸움을 벌여나가며 너를 만나리라. 어머니와 아버지,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의 백만 학도, 그리고 네가 목 놓아 외쳐 부르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탄탄히 어깨를 걸고, 사랑하는 나의 동지야, 보고 싶은 나의 아우야, 너를 만나러 가리라.

기다려다오. 부디 눈감지 말고 우리를 지켜봐다오. 곁에 누워계신 전태일 열사, 박영진 열사, 고정희 열사와 기쁜 노래, 밝은 노래 목청 돋귀 함께 부르며 네 곁으로 다가가는 우리를 지켜봐다오. 우리의 재회를 기다려다오.

우리는 곧 만날 것이다.

통일염원 44년 한여름
동생의 49제를 바라보며

래전이 뭉 시를 읽고

-밤이 모질어도 꽃을 피워야만 한다! / 신중호

-래전이 형, 미안, / 박기범

밤이 모질어도 꽃을 피워야만 한다!

신중호/시인. 국문 84

1. 향기

봄과 여름, 가을의 꽃들이 지나간 쓸쓸한 자리에 겨울꽃(冬花)이 홀로 열아홉 번 외로이 피고 졌을 테지요. 이제 올 겨울이면 스무 번의 그리움이 담긴 그 향기를 살아남은 자들의 마을로 풍길 터인데, 우리들의 무더진 코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맹세는 시간의 강물에 흐려지고, 기억은 늘 두 갈래 길로 끊임없이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순정한 뜻을 헤아리기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간다는 것의 '궁색한(나만의) 변명' 이 아닐는지요.

많은 평론가들이 시인을 '견자(見者)'라 부릅니다. 그 말에 대해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래전이형 시를 읽으면서 그 속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지요. 형은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아는 까닭에/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질이는/가을꽃일 수 없습니다."('冬花'중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시란 읽는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두께만큼 읽혀집니다. 이십년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을 때의 그 간극이 내가 살아온 삶의 질(質)을 말해주겠지요. 하여간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아는 까닭에"라는 시구가 가슴에 화살처럼 박힙니다. 두 갈래 길로 끊임없이 갈라져 나가는 시간(선택)의 미로에 갇혀 어디로 돌아가야(나가야) 할지 모르는 이십년의 단절과 방향을 래전이형은 그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과 삶을 예견하는 것 또한 시인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역사와 삶의 등불'이 되어 거칠고 어두운 길을 묵묵히 홀로 헤쳐 나가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피기도 전에 시들

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내 이름은 冬花라 합니다."('冬花'중에서)라고 말하는 래전이형의 속마음이 어떠했을지, 그 심정을 지금 다시 헤아려보니 마음 울컥합니다. 모두가 봄꽃과 여름꽃의 화려함을 말할 때 홀로 인고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는 겨울꽃의 '진정한 향기'를 노래하는 래전이형.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당신들의 나라에서/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冬花'중에서)라 말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진정성이 '冬花'의 '진정한 향기'라 여겨집니다.

2. 모독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冬花'중에서)은 온실에서 자란 꽃들의 냄새와는 다른 향을 품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분노를 모르는 자의 인생 조언은 '위조지폐'처럼 교묘하고 허망해서 듣는 이에게 되레 짜증만 줍니다. 래전이형의 시는 분노와 비겁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대여, 말하라!/우리들의 분노를/그대여, 말하라!/나의 비겁을"('그대에게-모독' 3.) 이십년 전 암울했던 시대를 뚫고 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분노의 표출'과 '비겁의 인식'이었지요. 생각해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만 알고 자신의 비겁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절룩이는 모습으로 불안하게 한 시절을 건너 왔지요. 이점에 대해 386세대들의 뼈아픈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래전이형은 '분노와 비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대의 모독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모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고 또 행동했던 결연한 실천가였습니다.

실천이란 사회 운동(movement)의 꽃입니다. 아울러 더 넓게 본다면 인생의 주요한 덕목이기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을 깊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만 쓰고 앉아있어야 하는가?/아직도 헛소리나 지껄이는 우리여야 하는가?/뜨거운 가슴 감추어 두고/핏발 선 눈빛도 가리워두고/종잇장이나 매우면서 이 세월을 보내야 하는가?"('시인에게-모독' 1.중에서)라는 외침이 더없이 소중한게만 들립니다.

관념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에게 형의 준열한 절규는 속수무책으로 아프기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안다는 듯 “바람일 수는 없다/한번 불어 흩먼지 일으키고/사라져가는 바람일 수는 없다//마른 땅에/떨어지는 빗방울일 수는 없다/땅 적시고 마르는/빗방울일 수는 없다//바람이려거든/한번 불어 북새풍을 쓸어가는/그런 바람이거라/그런 바람이거라”(「비」중에서)는 독려로 산자들의 마음을 위무하네요.

민주와 통일이라는 우리들의 염원과 투쟁이 청춘의 한 시절을 장식하는 일회적 관념이나 슬로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염려겠지요. 진정성을 망각한 무용담이란 값싼 자기 모독에 지나지 않습니다. 래전이형에 대한 기억은 추억의 편린을 짜 맞추며 이십년 전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변화의 시간 속에서 갱생해가야 하는 현재의 일이자 행동이어야 합니다.

3. 패랭이

자신의 모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 인생이란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와 같지요.(사실 나도 나의 모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학생일 뿐이지요.) 래전이형의 유고시집 『반도의 노래』에 실린 시들은 분노와 비겁과 모독이라는 엄격한 자기 검열의 소산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화염병을 들고 각목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요. 그런 조건의 변화가 살아남은 자들의 딜레마이자 원죄(原罪)입니다. 래전이형에 대해 갖는 우리들의 미안함은 결국 자신에 대한 미안함일 뿐입니다.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애매모호함으로 지금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형이 바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넌 아직도/포대기에 싸인 어린아이라야 하는가?/네 곁에 피 흘린 형제가 있고/우리 곁에 널 부르는 손짓들이 있는데/넌 아직/에미젓이 그리운 어린아이라야 하는가?”(「폐인에게-모독?2」중에서)라는 질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황석영의 단편소설 「물개월의 새」에 “나는 비로소 인생에는 유치한 일

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헤아려보면 모두가 사랑이기에 유치함이란 없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래전이형의 「폐인에게-모독·2」라는 시를 읽으면서 유치해도 좋을 것과 유치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늘 엄마의 적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로 남고자하는(현실에 안주하며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변호하는) 유치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밤이 모질어도/꽃을 피워야만 한다./ (중략)/이 역겨운 새벽에/꽃으로 피워야 한다./때꼴산 뒤에 숨은 햇살/마음껏 끌어올리는/온실의 카네이션보다 고운/꽃을 피워야만 한다.”(「패랭이꽃」중에서)는 래전이형의 시처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당위(當爲)의 씨앗을 마른 가슴에 새로이 심어 봅니다.

4. 엄니

래전이형이 살던 집 근처 도로가에 만발했던 붉은 패랭이꽃은 ‘엄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뒤편 후미진 그늘에 진달래 만발하고/저 건너 봉화산 꼭대기에 햇불이 오르는 날/당신의 가쁜 신음 그치고/검게 탄 아버지 얼굴에서 해묵은 피멍이 사라지는/그날/그날이 오기까지/엄니”(「그날, 그날이 오기까지 엄니」중에서)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래전이형. “죽기 전에 내 땅에서 배불리 먹을 쌀이나 있었으면/밤낮없이 논바닥 밭이랑을 기고/여름이면 참외 토마토/잠나면 똥장군도 쳐보며/유리알길 미끄러운 겨울날/뽕튀기 리어카를 끌었던/아버지”(「아버지의 고독」중에서)의 생을 척박한 땅에 남겨두고 떠난 겨울꽃 한 송이. 이제 그 꽃의 향기를 맡을 요량 정도는 겨우 생긴 것 같습니다. 이십년이 지난 지금, 래전이형의 남긴 유고시집 『반도의 노래』에 실린 시 몇 편에 대한 어쭙은 단상을 적어 내려가며, 나는 ‘나의 분노와 비겁과 모독’에 대해 질긴 반추(反芻)를 해봅니다. 그 되새김의 시간 속으로 “밤이 새도록 나는/내 방의 불을 꺼버릴 수 없습니다./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밤이 새도록 불을 켜두는 이유」중에서)라는 구절이 스며듭니다. 형이 켜둔 그 불이 영영 꺼지지 않기를.